

3분기 선방… 4대금융 ‘역대급 연간실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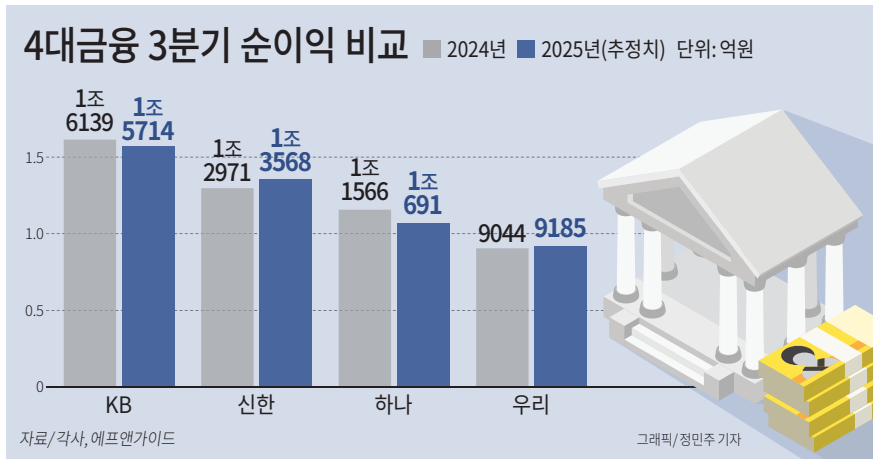
3분기 합산 순이익 4.9조 추정
‘대출규제’ 연말 이자이익 증가
증권·보험 선전 비이자이익 ↑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이자이익이 늘고, 보험, 증권부문의 비이자이익도 확대된 영향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은 4조9158억원으로 추정됐다. 전 분기(4조9720억원)와 비교해 1.13% 감소한 수준이다.

3분기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가계대출이 시지를 두고 둔화한 영향이 크다.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3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가계대출은 ▲3월 1조4000억원에서 ▲4월 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6월 6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6·27 부



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7월 2조7000억원 ▲8월 4조1000억원으로 둔화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말에는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해 들어 2월과 5월 각 0.25%포인트(p)씩 총 0.

50%p 내렸다.

반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2월 연 4.36%에서 최근 8월 연 4.06%로 0.47%p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같은기간 0.48%p 내렸다.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기준금리 인하폭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지도 않고, 예금금리는 더 많이 내리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역설이기도 한데, 강도높은 대출

규제가 2년넘게 이뤄지고 있어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실질적 대출금리는 지난 2년간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가산금리가 상승해 커버리지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 보험부문 등의 선전으로 비이자이익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2분기KB금융은순수수료이익1조32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늘어난 2조7233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신한·하나금융도 각각 2조2044억원과 1조3982억원의비이자이익을올리면서전년동기대비크게늘었고우리금융은 비이자이익 8863억원으로 지난해(8854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비롯한 비이자이익은 3분기에 전 분기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포토 키오스크’ 설치

삼성화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iosk)’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에 한해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도 현장에서 바로 출력가능하다.

교보생명

오페라 ‘리골레토’ 초청 22번째 문화 이벤트

교보생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오페라 ‘리골레토’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교보생명의 22번째 문화 예술 이벤트다. 교보생명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고 공연 기대평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S석 2장씩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개별 안내한다.

교보생명은 보험을 넘어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 예술 이벤트는 지난 2023년 시작된 이래로 고객들에게 뮤지컬, 연극, 재즈음악극 무료 관람과 해외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손해보험

국내여행객 전용상품 CREW 여행 갈 땐 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국내 여행객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인 ‘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골절 진단 ▲수술 ▲갑상선 치료비 및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 일당을 하루에 10만원씩 보장한다. 호텔 투숙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거지 도난 손해’ 보장은 내 집에 불법 침입,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1인당 보험료는 2박3일 기준으로 2000원이다. 만 0세부터 79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친구·가족·동호회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0인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채권중심 자산 조절 성과… 롯데손보 ‘흑자전환’

롯데손보, 상반기 투자손익 391억
2분기 지급여력비율 129%, 9%p ↑

롯데손해보험의 실적 호조가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채권 중심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채권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손익과 건전성 지표에 반영된 것.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상반기 영업이익 607억원 가운데 투자손익은 391억원(감독회계)으로 전년 동기(-34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 단독(3개월) 기준으로는 투자영업이익 154억원(일반회계)으로 전년 동기 -79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2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29.46%(경과조치 후)로 올 1분기 대비 9.6%포인트(p) 개선됐다. 지급여력금액 2조4797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 1조9154억원으로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가운데 가용자본이 뒷받침됐다.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포트폴리오의 ‘채권 축’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 6월말 운용자산 14조8329억원을 기록했다.

손익의 방어에도 운용측 개선이 기여했다. 전기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감소(-155억원)의 주요 요인으로 보험손익 -534억원과 함께 투자손익 425억원을 고려하면 보험영업의 변동을 투자부문 개선이 상당 부분 보완한 셈이다.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대체투자 비중을 48.1%→27.3%(올해 3월말)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24%→49.1%로 높였다. 채권 보유액도 2조0795억원에서 5조6750억원으로 약 2.5배 확대했다.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높여 변동성을 줄이고 요구자본을 낮추는 동시에 고금리 환경에서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금리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2분기 초장기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는 국면에서(예: 30년물) 보험부채가 자산보다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요구자본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채권 중심 운용은 이자수익 측

면의 버팀목이 됐다. 그 결과 손익(상반기 투자손익 391억원·2분기 순익 475억원)과 건전성(K-ICS 129.46%)이 나란히 개선되는 조합을 만들었다.

롯데손보는 채권 비중과 듀레이션 매칭을 축으로 변동성을 더 낮추고 잔여대체투자 관리와 자본정책 정교화로 K-ICS 레벨 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 등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안전자산인 채권 등을 중심으로 우량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펀더멘털의 체질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적의 교통… 주변대비 분양가 괜찮아”

부동산 현장 르포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지하 4~지상 25층 11개동, 931세대
“프리미엄 수준 입지, 현실적 가격”

지난 주말 찾은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견본주택. 서울 동작구 사당동 중심 입지에서 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방배동·이수역 일대가 서울 서남권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대표 주거지인 만큼 교통·입지 강점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84㎡, 170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공급 물량은 ▲44㎡A 27세대 ▲44㎡B 8세대 ▲49㎡A 53세대 ▲49㎡B 22세대 ▲49㎡C 6세대 ▲59㎡A 4세대 ▲59㎡B 5세대 ▲74㎡5세대 ▲84㎡A 29세대 ▲84㎡B 4세대 ▲84㎡C 1세대 ▲84㎡D 6세대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44㎡A 10억480만~10억6850만원 ▲44㎡B 10억7170만~11억2760만원 ▲49㎡A 11억2760만~12억1500만원 ▲49㎡B 12억1810만~13억80만원 ▲49㎡C 12억7550만~13억5600만원 ▲59㎡A 16억3980만~17억4300만원 ▲59㎡B 16억2150만~17억2380만원 ▲74㎡ 18억2630만~19억4200만원 ▲84㎡A 21억1080만~22억4460만원 ▲84㎡B 20억6950만~21억5690만원 ▲84㎡C 21억3280만원 ▲84㎡D 21억1130만~22억7850만원 선이다.

인근 방배동 일대에서 지난해 분양된 ‘디에이치방배’ 전용 84㎡ 분양가가 22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의 분양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브랜드 라인 차이가 있음에도 생활권이 겹치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프리미엄 수준 입지에 현실적인 가격’이란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과 맞닿은 사당동 중심 입지로, 7호선 이수역과 4호선 충신대입구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 정거장 거리에는 2호선

사당역과 9호선 동작역이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사당IC 접근성도 뛰어나다. 교통 편의성만큼은 현장 방문객 대부분이 “서울에서 손꼽힌다”고 평가했다.

30대부부 김보라(서울 강서구)씨는 “교통이 정말 좋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인근 매물과 비교하면 괜찮은 수준”이라며 “신축이라는 점도 매력이라 59㎡ 타입을 눈여겨봤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jw13@